

第143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8月2日(火)

場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調查對象選定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1. 調查對象選定에 관한件..... 2面

(14時30分 閉議)

○委員長 李基澤 두 時에 閉議하려고 하던 本委員會 會議時間이 한 30餘分 遲延이 되었습니다. 그 사정은 이 자리에서 省略하기로 하고 이제부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當委員會를 閉議하겠습니다.

그러면 立法調查官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까.

○立法調查官 崔炳道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基澤 當委員會에 새로 補任되신 崔戊龍委員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戊龍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共和黨 崔戊龍委員입니다.

申鐵株委員이 個人的인 사정에 의해서 버란 간에 本委員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조록 指導鞭撻을 바라면서 분위기 좋은 그러면서도 愛國의이고 애정이 깊은 그런 會議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또 한 가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委員會를 運營하기 위해서 편의상 第1·2·3·4小委를 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本委員會 會議에서 第3小委員會 委員長을 平民黨 副總裁이신 孫周恒委員이 맡고 계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辭任을 하고 趙昇衡委員이 第3小委員會 委員長을 맡도록 調整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昇衡 第3小委員長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昇衡委員 제가 人權辯論을 좀 했다고 그래서 우리 副總裁님께서 저에게 이 막중한 所任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우리 委員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小委員會 運營을 하고 調查를 公正하게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리고 第3小委員長을 辭任하신 孫周恒委員은 第3小委員會에서 第1小委員會로 가겠다는 것을 報告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議事日程은 앞으로 本委員會가 活動해야 될 調查對象選定에 관한件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4黨 交涉團體 幹事會議를 가져서 調查對象 選定作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報告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히 委員長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本委員會가 앞으로 指向해야 될 調查活動의 主要한 指針의 一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委員께서 今年 여름중에 가장 더운 오늘을 선택해서 왜 委員會를 召集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議事日程을 정할 때 오늘이 이렇게 더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本委員會를 지금 쳐다 보고 있는 이 國民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이 여름 날씨보다도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國民의 念願과 意志를 지금 반대되는 입장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新聞紙上을 통해서 어제 보고 이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議事日程 이전에 이 사

실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判斷이 되어서 제 所感의 一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權力型非理를 調査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전부가 說明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嫌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證據捕捉에까지 이르러야만 하겠습니까. 실제 이 證據捕捉이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제 新聞紙上을 통해서 이미 4黨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30個 5共非理 調査對象 중에서 새세대육영회에 寄附 寄託한 그 名單을 特定人이 지워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本 委員會가 앞으로 調査해야 될 事件의 명백한 證據의 湮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本 特委의 活動을 정면으로 妨害하는 行爲다 이렇게도 이 사람은 판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30個 調査對象 項目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事件의 中心人物은 自肅하면서 本 委員會의 特委活動에 應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證據湮滅의 行爲를 恣行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忿怒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證據湮滅行爲에 대해서는 우리 本 特別委員會에서도 특별한 別途의 措置를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會議劈頭에 委員長으로서 이러한 證據湮滅行爲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判斷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本 特委에 집중된 全國民的 관심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本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廷武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委員長이 司會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議事進行發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

(14時37分)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 第1項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을 이제부터 上程하겠습니다.

지난 第2次 當 委員會에서는 第1次 調査對象選定の 件에 대해서 우선 幹事會議에서 합의 보도록 決定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月29日 幹事會議에서 各 交涉團體로부터 第1次 非理調査 對象資料를 提出받아서 檢討를 한 바가 있습니다. 各 交涉團體別로 提出된 資料의 分量을 말씀드리면 民主正義黨 25件 平和民主黨 21件 統一民主黨 58件 新民主共和黨 59件이 各各 提出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幹事會議에서 檢討한 결과 우선 30件을 選定하였으며 나머지 未合意 部分은 우리 全體委員會에 回附하여 第1次 調査對象 與否를 各各 決定하기로 하였습니다. 合意된 部分은 이미 言論에서 報道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1. 日海財團의 設立背景 및 資金造成 關聯 非理
2. 李順子씨의 새세대육영회 및 心臟財團 關聯 非理
3. 全斗煥大統領 一家의 非理 및 財産 海外逃避 의혹
4. 全斗煥 前大統領 私邸 新改築 및 周邊 公園化關聯 非理
5. 大統領別莊 建立 및 大濟「댐」水門操作으로 인한 人命 財産被害 의혹
6. 外國產 소導入關聯 非理
7. 鷺梁津水産市場 運營權 強奪非理
8. 大田 삼성市場 敷地買入關聯 非理
9. 不實企業. 이 不實企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不實企業調査 業體 對象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한 項目으로 不實企業으로만 規定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10. 三濟教育隊의 人權 非理
11. 全基煥씨의 警察人事 介入 및 利權 非理
12. 大統領 專用機 B-737 導入關聯 의혹
13. 全斗煥 前大統領 父母 墓 聖域化 非理
14. 李圭東 農場 特惠 非理
15. 「로드롬」航空機 事件
16. 釜山 「하이얏트호텔」 引受說
17. 低質炭 輸入에 따른 「리베이트」說
18. 石油基金 등 각종 基金의 政治資金 流用說
19. 株式會社 동일에 관한 特惠說

- 20. 城南 한미病院 關聯事項
- 21. 쇠고기波動 介入說
- 22. 交通信號燈 納品
- 23. 各市·道知事 公館內에 大統領 專用 施設 建立 非理
- 24. 「골프」場 認可過程 의혹
- 25. 서울市 替賣地 「롯데」賣却關聯 特惠 非理
- 26. 朴正熙 前大統領 사망 직후 育瓦臺財 產行方 의혹
- 27. '80年 不正蓄財 還收財產 處理 의혹
- 28. 原電 11·12號機 導入 및 受注關聯 의혹
- 29. 大韓住宅公社 再開發關聯 非理
- 30. 五大洋事件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幹事會議에서 합의된 30件에 대하여는 별다른 異見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調查對象으로 우선 委員長이 낭독한 이 30件에 대해서는 確定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朴 實委員 말씀하세요.

○朴 實委員 5共和國 非理를 볼 때 정말로 엄정해서 悲憤慷慨 울분을 다 떨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個로 한정된 것은 어떤 會議運營이나 日程과 관련시켜서 30個로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追加시킬 수 있다는 前提 아래에서 한 것입니까?

○委員長 李基澤 이것을 결정해 놓고 報告 말씀으로 또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質問이 있어서 答辯을 드리지요.

저희들이 아까 各 黨에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한 이 本 委員會에 접수된 事件數를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與野 幹事間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30件입니다. 이것은 調查對象으로 交涉團體間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未合意部分에 있어서는 오늘 全體會議에 上程해서 討論을 거쳐서 우리 4個 政黨間에 합의를 導出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 本 委員會에다가 앞으로 오늘 이 時間 이후에 上程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與野 院內交涉團體 幹事間에 합의된 이것은 또 本 委員會가 우

리 幹事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4黨 幹事들간에 30個밖에 합의를 못보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幹事들 會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本 委員會에 上程해서 합의를 한번 導出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朴 實委員 委員長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개 30個에 대해서는 本 委員會의 效果的인 운영을 위해서 幹事들이 합의를 했다가 그것은 존중하기로 하고 그러나 간혹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30個로 한정해서 결정을 하면 國民들 또 非理의 대상이 된 者들 또 각종 非理 疑惑에 휩쓸려서 부당하게 침해를 받은 많은 國民들이 5共非理調查 特別委員會가 30個만 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個는 일단 받아들이고 그밖에 미흡한 부분 또 國民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各 黨이 충분히 開陳을 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중에 다시 또 추가해서 결정하는 그런 議事進行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孫周恒委員 말씀하세요.

○孫周恒委員 그것과 아울러서 全斗煥 前大統領 一家라고 그랬는데 그 해석은 어디까지 지금 하는 것입니까?

全斗煥씨 一家라고 하면 李順子씨는 자기 부인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李順子씨 非理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있고 全斗煥씨 一家라고 하는 범위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李聖濟委員 議事進行發言이요.

○委員長 李基澤 이렇게 합니다.

기왕 議事進行發言을 要請했음니다마는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하기를 지금 우리 報告事項까지 말씀을 하고 議事進行發言을 드리기로 체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報告過程에서 이 本 質問의와 관련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質問을 한 것입니다. 議事進行發言도 아니고 質問을 했기 때문에 저의 報告事項에 대해서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部分이기 때문에 委員長이 答辯하고 그것을 해명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까지 제가 答辯만 드리고 議事進行發言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孫周恒委員이 質問을 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 4黨 幹事會議를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한계라고 할까 이것을 論議를 제대로 미쳐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委員長의 私見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30個部分 또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調査對象으로 選定해야 될 부분들 가운데서 特別項目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쏘씨 親戚部分을 쏘씨 一家의 非理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저 나름대로 常識의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왔습니다. 별 異議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李聖浩委員 다시한번 반복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基澤 우리가 앞으로 30個이상 調査對象으로 追加項目이 더 나올는지 모릅니다. 30個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 또 追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 우리 調査對象 가운데에서 別個의 項目으로 쏘씨一家 親戚에 대해서 非理로 포함되지 않는 餘他 非理部分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第3項인가 하는 쏘씨一家의 非理 그 전체 속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마 常識인 것 같아요.

○李聖浩委員 幹事會議에서 이 事項을 合意 본 것인데 個人意見 이렇게 하지 마시고.....

○委員長 李基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지만 幹事會議에서 얘기를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지요 이 정도로 해 놓고 우리 幹事會議에서 이것은 討論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委員長 個人 意見만 잠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議事進行發言.....

○朴 實委員 그러면 쏘씨一家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李聖浩委員 그 事項을 幹事會議에서 여하히 合意를 봤는가를 얘기해야지 委員長께서 個人 意見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

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基澤 幹事會議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 個人意見만 여기서 말씀드려 놓고..... 그러면 議事進行發言을 드리기 전에 이 30個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調査對象은 여기서 可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金 炫委員 可決以前에 本案件에 대한 명백한 異見이 있어서..... 이것은 議事進行이 아니고 30件에 대해서 짚고 可決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 잠깐 얘기해 봐요.

○金 炫委員 죄송합니다. 合意된 것은 분명히 하는데요. 26번 項을 분명히 여러 委員님들 계신 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朴正熙 前大統領 死亡直後 靑瓦臺財産 行방 묘연했는데 이 문제는 그날 對話가 되기를 어느 黨에서 現金分配問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시 朴正熙 大統領의 資金을 조성한 경위부터 상세히 調査해야 한다는 意見이 있어서 그 당시 幹事였던 本人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造成된 것이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違調査 權力型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그 이후만을 정확하게 짚는다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명백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걸리는 게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27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라도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委員長 李基澤 됐습니다. 그러면 4黨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이상 30件에 대해서는 앞으로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理調査對象으로 확정합니다. 여러분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李廷武委員 말씀해 주세요.

○李廷武委員 아마 우리 委員長께서 多選議員에다가 여러 가지 人格의으로나 德望으로 봐서 이 歷史的인 責務가 주어져 있고 많은 國民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이 特委의 委員長으로 아마 우리 梁慶子委員이 추천을 하고 전부 合意를 해서 委員長職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眞相調査라는 것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客觀的인 사실을 규명

하고 그래서 調査過程에서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나 또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또 과장된 사실 등을 發見해서 우선 國民들의 궁금증과 또 政治적으로 앞으로 많은 國民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委員會의 目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調査過程에서 이 基本問題는 與野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에 관해서 個人的인 先入觀이나 感情的인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本特委는 아마 그런 觀點에서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理에 대한 客觀的인 眞相을 명백히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特委가 稼働되는 단계인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當爲性에서 볼 때에 그 동안 아마 李基澤 委員長께서 東亞日報 7月10日字 서울新聞 7月17日字 또 女性東亞 8月號 등등의 「캐스콤」과 「인터뷰」하신 내용과 우리黨 金重權委員과 對談한 朝鮮日報 7月14日字의 장황한 글을 읽어보고 本特委의 충실한 活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事項입니다.

저 자신 개인도 어떤 個人的인 先入觀이나 편견을 가지고 調査活動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與黨이지만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眞相調査의 공정한 裁判長 역할을 해야 될 우리 委員長께서 眞相調査活動도 하기 전에 미리 特定人에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것은 特定人에게 非理가 확실히 있다 라는 단정적인 表現과 확정하는 發言을 한 것은 調査活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주고 이 特委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委員長께서도 所屬政黨이 계시고 또 그 政黨의 一員이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일단 이 特別委員會는 國會의 憲法機關이기 때문에 中立的이고 客觀的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議事進行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根據下에서 첫째로 委員長님께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本特委를 오늘도 아까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申請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發言申請을 안받은 상태에서 계속 發言이 진행

되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늦게사 發言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이 特委運營을 客觀的으로 공정하게 運營하겠다는 方針을 먼저 밝혀 주시고 또 이 特委運營으로 인해서 特定한 個人的 名譽毀損이나 아니면 또 國民들이 보더라도 政治人들이 좀 더 수준높은 調査特委를 稼働한다는 인상을 주지않는 그런 發言이나 內容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感情的 政治報復이나 個人的 名譽毀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번 아마 4黨總裁들의 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로 이것이 우리가 與野 공히 지향하고 있는 民主發展과 과거의 政治的인 問題點을 청산한다는 目標意識을 가지고 같이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民正黨 委員이지만 民正黨도 이 문제에 관해서 調査에 관해서 상당히 積極的인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좀 더 솔직이 말씀드리면 與野 공히 共通分母를 갖고 있는 것이 第5共和國에 있어서 政治權力型非理는 빨리 청산되고 또 事實調査가 선행되고 나서 國民들에게 우리 特委委員들이 박수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委員長께서 좀 더 공정하고 客觀的인 進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發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委員長은 進行過程에서는 個人的인 意見이나 個人的인 느낌을 이 委員會에서 표시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客觀的인 進行에 가장 力點을 두는 委員長이 되어서 國民들이나 우리 特委委員들로부터 영원히 歷史에 남는 委員長으로서 존경받는 議事進行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奉旭委員 委員長! 정식으로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旭委員 發言하세요.

○金奉旭委員 議事進行은 지금 이 議案에 내놓은 우리 會議場의 會議順序라든지 會議가 잘못됐든지 또 議事進行에 대해서 무엇을 내놓았는지 하는 것이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지금 委員長이 場外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議事進行發言으로 그것을 여기다 이게 議事進行發言에 해당이 됩니까? 議事進行을 지금 여기 30案件 그 이외에 다시 각

自 委員이 내놓는 議案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 案이 이 會議에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議事進行인데 委員長이 밖에서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니 앞으로 委員長이 議事進行을 공정히 하라고 하는 것이…… 議事進行에 만약에 不公正했을 적에 당장 지적해서 是正하도록 하고 委員長도 紳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적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렇게 하자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議案을 30案件을 내놓고 可決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 문제 議案 또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현재 上程된 問題 가지고 한다고 하면 議事進行發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물고 놓어지고 물고 놓어지고 하면 어떻게 언제 調查하겠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앞으로 議事進行은 반드시 會議의 議事に 관계된 소리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우리 民正黨 幹事가 答辯을 하고 넘어가라고 해서 答辯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議事進行發言 가운데에 委員長이 마치 委員會를 不公平하게 運營하는 것과 같은 事項을 指摘을 했습니다.

이제 3次會議에서 이런 指摘을 받아서 委員長이 앞으로 이 委員會를 어떻게 運營할까 상당히 마음속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委員會運營은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公正하게 하려고 努力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努力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委員會가 열릴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뒷전에서 4黨 交涉團體의 幹事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충분히 論議를 해서 어느 정도 合意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委員會를 召集을 하게 됩니다. 오늘 召集한 것도 委員長 자의에 의해서 召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0件도 4黨 幹事들이 충분히 長期間 協議 끝에 우리가 會意에 到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誤解없이 委員會運營을 公正하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혹시 先入見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各 言論에서 비치는 委員長의 이전 見解는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더라는 그런 指摘事項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本 委員會 委員長의 立場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同時에 한 黨의 黨員이고 또 한 地域을 代辯하고 있는 國會議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可能하면 그런 言論에 本人 스스로도 안 비쳐주는 것이 이럴 때는 더욱 좋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같이 政治를 해 보지만 政治人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나갑니다. 나가서 나가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일단 나가면 나는 한 政治人으로서 내가 보고 있는 第5共和國의 非理問題에 대해서는 내 소신과 내 見解와 내 意志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委員長이 司會를 보다가 내가 所屬되어 있는 黨의 立場에서 꼭 發言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는 幹事들 하고 이 자리를 교체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 委員長의 立場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會議 과정에 委員長의 私見이라고 答辯을 드린 것은 그것도 참 일일이 따지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意見을 항시 무시하고 委員長의 個人見解를 세번 네번 열번 내세웠다면 그런 指摘도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그러나 아마 이 委員會생기고 처음으로 묻길래 委員長 個人的 私見입니다 하고 그 얘기는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私見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꼭 指摘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쨌든 우리 國民이 이 委員會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느 黨의 立場을 초월해서 우리 舊時代의 잘못된 것을 한번 고쳐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모였으니까 그 범주를 이 委員長도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0個 調查對象이 確定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우리 委員會에서 決定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各 交涉團體에서 提出한 우리 4黨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보지 못한 未合意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論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參考가 될까

싶어서 이것도 報告말씀 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4黨 幹事會議을 했습니다. 1次的으로 30個 合意된 이의 우리가 좀 本會議에 上程하기 전에 追加合意를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未合意部分에 대해서는 野團 平民黨 民主黨 共和黨은 共同으로 追加調査對象을 上程시키고 또 民正黨에서 追加調査對象을 要請할 것이 있으면 要請을 해 주시면 民正黨부터 시작해서 그 追加調査對象으로 주장하는 그 事由를 말씀을 하고 또 별 異議가 없으면 追加調査對象으로 우리가 合意를 보도록 이렇게 앞으로 會議進行을 할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洪熙灼委員** 追加對象目錄이 民主黨이 17個 平民黨 4個 共和黨 9個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 오전 幹事會議을 했는데 幹事會議에서도 전혀 調整되지 않은 案件들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그렇습니다.

○**李聖浩委員** 존경하는 委員長님과 議會 경험 이 많은 先輩 幹事委員들께서 30가지씩 경하시도록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전번 本委員會에서 決定하기를 幹事會議에서 決定을 하고 그 事項에 대해서는 小委員會에 이것을 分配해서 넘기기로 合意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事項이 여하히 되었는지?

그리고 또 당연히 會議進行上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委員長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進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李委員이 委員長에게 質問을 주신 것은 우리가 小委員會를 構成해 놓고 있고 合意된 30個項에 대해서는 小委員會別로 分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지금 追加分으로 議題가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요?

○**李聖浩委員** 현재 原則的인 문제에서 우리가 調査對象에 대해서는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議題가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보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幹事會議에서 合意되지 못한 事項을

本 委員會에 옮긴다는 것은 다음에 論議할 문제지만 30個를 기왕에 提出했다고 했을 때 이 事項에 대해서 우선 여하히 處理를 해야 되느냐…… 委員會에서 分配하는 문제까지도 幹事會議에서 30個는 적어도 合意를 보고 넘어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提起되는 것입니다.

追加分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基本的으로 우리가 定한 원만한 議事進行을 위해서 幹事會議에서 먼저 모든 것을 合意보고 나서 全體會議에 回附한다고 한 것이 우리의 原則的인 合意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基澤** 委員長이 解答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委員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같은데 지난번 2次 全體會議에서 決議되기를 幹事會議에서 調査對象을 選定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30個밖에 되지를 않았읍니다. 各黨에서 提出한 것은 30個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部分을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幹事들끼리 議論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이상 우리 幹事들로서는 도저히 合意가 안되니까 나머지 部分에 있어서는 全體會議에 回附해서 우리가 決定하도록 하자 이것이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입니다.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方法에 있어서 30가지 合意된 것부터 왜 먼저 하지 않고 나머지까지 덧붙이려고 하느냐 하는 이것은 물론 李委員이 말씀하시는 것도 方法論에 있어서 一理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그 30件이 1次로 우리가 먼저 調査를 해야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幹事會議과 함께 고리가 지어져서 이 全體會議에서도 調査對象을 무엇을 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選定하는 그 會議이기 때문에 30가지가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小委員會에 分擔시키고 하는 문제보다는 調査對象을 확정짓는데 있어서 幹事會議에서 合意되지 못한 部分은 이 全體會議에서 하나하나 上程해서 우리가 討論을 거쳐서 合意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方法이라고 해서 幹事會議에서 그렇게 合意를 하고 오늘 會議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幹事會議의 의견과 그 決定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委員이 지적하신 것이 전혀 方法上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해가지고 오늘 3次 委員會에서는 未合意部分을 上程해서 여기에서 한번 討論에 回附해 보자 그렇게 하고 委員會를 열었습니다.

○金事許委員 委員長께서 처음에 이미 報告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答辯해 가면서 언제 會議을 進行합니까?

○李聖浩委員 30件을 合意보았다고 그러면 네 분이 하는 幹事會議에서는 合意못본 事項을 全體會議에다 옮겨가지고 合意를 보라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존경하는 幹事委員들께서 우리 委員들한테 대한 職務遺棄가 아니겠어요? 그래 幹事會議에서 合意못본 事項을 全體會議에 옮겨가지고 어떻게 合意를 보자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基澤 李委員! 李委員의 말씀 취지를 우리가 다 알아 들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오늘 午前에 우리 4黨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未合意 部分을 民主正義黨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新民主共和黨 順으로 上程해서 討論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民主正義黨에서 혹시 調査對象으로 追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重權委員 말씀하시겠어요?

○金重權委員 지금 저희가 油印物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平和民主黨이 3件을 追加하도록 되어 있고 新民主共和黨이 9件 統一民主黨이 17件을 追加하도록 이렇게 油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분명히 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幹事會議때 各黨이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平和民主黨의 경우는 21件이었고 新民主共和黨은 59件 統一民主黨은 57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확정된 것이 30件이었습니다. 그러면 算術的으로 30件을 除하면 新民主共和黨이나 平和民主黨에서는 상당한 部分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各黨이 案으로 提出한 나머지 部分하고 지금 提出한 部分의

數值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면 저희가 民主正義黨을 代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幹事會議때 各黨을 代表해서 資料를 전부 提出했습니다. 件數가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30件이 合意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30件을 빼면 지금 例를 들면 統一民主黨의 경우는 17件을 내었는데 52에서 30을 빼면 22件을 審議해야 될텐데 17件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部分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金重權委員이 與黨 幹事이고 저희들 委員會 會議때 마다 빠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 며칠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各黨에서 調査對象으로 本委員會에 提出했을 당시에 그 事件 件數以外에도 앞으로 우리가 調査活動을 하다가 우리가 꼭 調査對象으로 포함을 시키야 될 事件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도 調査對象으로 포함시키야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幹事會議에서 合意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各黨이 다 마친가지일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幹事會議에서 合意된 것 이외에 나머지 件數를 追加分으로 다 올리자면 調査對象 選定에만 時間을 다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一部 留保를 하고 이번 1次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꼭 追加로 넣어야 될 事件만 各黨의 몇 件씩의 數字가 오늘 午前 幹事會議에서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重權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幹事會議에서 議論된 것은 會議錄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序頭에 委員長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說明이 되셨으면 다시 說明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記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民主正義黨에서는 오늘 第3次 會議에서는 追加로 提出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朴進球委員 議事進行發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委員님! 저는 慶南 蔚州 地區黨에서 國會議員으로 選出되어 온 朴進球 初選議員입니다.

막상 이렇게 委員會에서 發言을 해보려니까 마음이 상당히 떨리고 發言이 잘 안 됩니다 마는 제가 30年間の 行政經驗을 통해서 보았을 적에 이런 組織을 運營할 적에는 좀 더 效率的인 方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며칠 國會가 안 열리는 사이에 地方에 가서 有權者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그 분들의 상당한 수가 5共非理의 正確하고도 確實하고 알찬 調查結果를 國民들에게 속 시원히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소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 會議서 調查對象을 몇 個로 하느냐 또 제가 보기에는 調查對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것으로써 맏지 아니하고 계속 나올 것이다 하는 委員長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國民들이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를 調查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幹事들이 定한 이 30가지 중에서라도 몇 個를 빨리빨리 調查를 해서 우리 國民들에게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 상당한 國民的 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效率的으로 추진하는 길은 調查對象을 계속 선정해 나가면서 調查를 한 두個라도 빨리 착수해서 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梁慶子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慶子委員 얼마든지 많이 하자고 시간이 많아서 議題를 많이 선정하자는 立場에서 議事進行 하나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양해를 해주셔야지 相對委員의 發言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共非理를 비롯한 각종 特別委員會의 活動을 앞에 놓고 本委員이나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불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끄러움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다소의 안타까움과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會議를 시작할 때에 제가 推薦해

마지않았던 우리 委員長님께서 제가 공연히 推薦해 드렸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갖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新聞記事化되어 있는 예컨대 世代育英會의 證據湮滅 云云은 내가 委員長님께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委員長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湮滅했다는 證據를 가질 수 있도록 正式通告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만약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다만 新聞紙上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확실한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委員長으로서 신중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심증이 있는 事件이라고 하더라도 黨利黨略의 이야기든 證據없이 사전에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特委 委員長께 中立을 지켜주시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特委活動을 할 필요없이 먼저 아까 우리 黨의 李廷武委員長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론을 먼저 유도해 내는 그러한 뜻을 가진 表現이라든가 또는 調查行爲를 하기 전에 결론이 나온것 같은 그러한 사실상 偏頗的인 議事進行과 調查行爲없이 하는 말씀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案件追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調查對象選定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라고 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幹事들을 選定해서 幹事들로 하여금 會議進行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일종의 委任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물론 委任事項도 있고 사전에 協議事項이 있어서 協議해서 안될 경우에는 全體會議에 넘기면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幹事들로부터 먼저 議題를 選定하는데 임하게 했다고 보았을 때 거기에서 選定된 것을 進行하는 것이 會議의 시간을 절약하고 바람직한 調查行爲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30件을 選定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反對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無限定 議題를 選定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理 이런 것이 아니라 5共和國에서 執行한 모든 行政을 調查하자

하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年間の 政府 行政 執行事項 모두를 選定 하자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닌가……

政府가 政策을 執行하는 과정에서는 最高 國家統治者로부터 一般 國家公務員 모두가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業務執行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特定集團이나 特定個人 어떤 國民이 自己 政策執行過程에서 利害가 엇갈렸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流言蜚語로 發表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일이 받아들이자면 한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議題는 30件으로 일단 결정해 주실 것을 建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祚委員 말씀하세요.

○金奉祚委員 統一民主黨의 金奉祚委員입니다.

오늘 이 歷史的인 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理를 척결하기 위한 우리 委員會의 모임은 國民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열려있습니다.

13代 國會가 그러합니다마는 정말로 어찌 어찌 하다가 우리 나라에도 진실로 참 政治의 民主化가 이렇게 오도록 政治하는 우리가 아닌 國民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임하는 이 國政은 사사롭게 個人이나 또한 黨利黨略次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온 國民이 기대하고 한 時代의 아픔을 정말 우리가 自責하는 마음으로 또 크게 준엄하게 꾸짖는 마음으로 그렇게 規定되고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은 밝혀 내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고쳐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살아가자 이러한 각오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民主正義黨의 李廷武委員과 梁慶子委員 이런 우리 委員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물론 제가 말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을 추천한 것이 무슨 우리가 善心을 쓰고 그것이 무슨 特惠를 준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會議가 안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委員께서는 5共和國에서 일어난 事件이 아무 것도 아닌데 針小棒大해

가지고 크게 알려져 있으니 정확하게 밝혀 주어야 된다 사실을 빨리 國民들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最小限度 搜查機關이 搜查에 임할 때도 그렇습니다.

一般輿論이라든지 情報에 의해서 그것을 搜查에 시작하고 또 캐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 소문이 나있는 곳에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시아」地域에서 우리 政治文化가 權威主義的이고 閉鎖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與黨이 몇 席만 더 있으면 一方 強行하고 野黨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政治風土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選舉에서 國民들이 정말로 社會와 經濟에 걸맞는 政治의 發展을 우리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도가 말해서 與小野大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동바동 부인할 수 없고 여기에서 무슨 기분과 흥분을 가지고 國民들에게 대할 수 없습니다.

준엄하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진실로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虛心坦懷하게 우리 4黨이 자기 黨의 주장을 내놓고 政策을 내놓고 보다 더 어느 政黨이 國民庶民大衆에 近接하는 政策이나 또 그리고 이 政策이 집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책임도 우리 모두가 지는 그러한 開放社會 말하자면 對話의 社會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이 우리 特委의 우리의 임무는 마치 制憲國會에서 만들었던 말할 수 없는 잔악하고 아주 혹독했던 日本 그 殘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反民特委 이와 같은 정말로 우리 國民의 自衛 民族의 얼을 심는 그러한 委員會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國民이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議事進行을 다 하고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 저런 이야기로써 한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國民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의없이 의논하고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같이 승意함으로써 우리 委員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고 國民에게 몇몇한 그러한 委員會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委員會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委員會를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議事進行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죄송합니다. 이제 委員長 職權으로 議事進行發言을 안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議事進行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本質을 벗어났습니다.

民主正義黨 幹事에서 자기 貴黨 民主正義黨에서는 오늘은 追加調査對象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제 他黨에서 추가할 그런 事件이 있으면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계속 議事進行發言만 해서야 會議進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黃潤欽委員 오늘 議事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基澤 그러니까 議事日程이 지금 上程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平和民主黨의 朴實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朴實委員 議事進行을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演說調의 雄辯調의 悲憤慷慨調의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非理特委에서 지금 議題를 선정하다 보니까 술직이 말씀드려서 내자신이 지금 울분과 悲憤慷慨調로 되어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자신을 제어하는 의미에서 또 效果的인 議事進行을 위해서 우리 平和民主黨이 추가하는 것을 아주 적어도 1次對象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效果的으로 考慮考慮해서 數字를 줄였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黨 特調委員長 孫周恒 先輩委員이 계시지만 이분이 黨自體에서 조사한

것만으로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내지 30가지를 얘기했고 또 그중에서 1次的으로 效果的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개 네 가지 것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幹事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히 民主正義黨측의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네 가지 중에 저는 본인에 관한 事項 하나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개 그 전에 12代에 빈 분들은 빈 분이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첫 자리여서 제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提起하려고 하는 문제는 民主黨側에서도 提起했던 문제가 됩니다. 또 一部는 共和黨側에서 提起한 문제도 돼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發言이 많이 있을테니까 좀 分別하는 의미에서 제가 提起하는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追加로 要請하는 것은 크게 봐서 한 가지 작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平民黨은 80年 公職者肅正問題 또 새마을 非理問題 證券市場 특히 權力層이 介入한 造作問題 등등을 提起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敷衍해서 說明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韓國言論 統·廢合過程에 있었던 各種 非理와 그것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副作用을 일으키고 있는 韓國放送廣告公社의 엄청난 收入에 대한 支出을 둘러싼 疑惑을 당연히 本 委員會에서 取扱해서 調査해야 된다는 論旨입니다. 앞의 세 가지 것은 다른 同僚委員들이 말씀하실 機會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省略하고 저는 韓國言論 統·廢合過程의 各種 非理와 生存權剝奪 人權蹂躪 이것도 우리가 非理의 次元에서 不正한 權力的 濫用의 次元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本人이 當事者입니다. 내가 엄청난 權力的 被害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過程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必要에 따라서는 質問하는 國會議員의 立場이 아니라 證言을 하는 證言者의 立場에서도 얼마든지

發言을 해서 人權을 尊重하고 부당한 政治權力이 國民의 生存權을 총칼로 剝奪하고 빼앗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國民한테 내가 證言하고 다시는 이런 非理가 再現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證言하고 싶은 그런 心情입니다.

그래서 또 가령 저 자신 얘기지마는 代表的인 경우입니다. 17年間이나 私企業에서 言論自由를 위해서 또는 그 公的인 分野에서 公的 性格을 띤 私的 分野에서 生業에 從事했던 이 사람이 保安司다 情報部다 하는 그 부당한 政治權力에 의해서 아무런 說明이나 理由없이 또 訴追도 못하게 하는 過程에서 剝奪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個人的 生存權과 人權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非理의 次元에서 檢討해 보아야 될 것은 當時에 특히 受益性이 있다는 또 公的 私的 「매스컴」의 性格에서 論議의 餘地가 있었던 放送과 「텔레비전」을 統合하는 過程에서 現役將校가 拳銃을 휴대하고 強壓的으로 私有財產을 뺏도록 強要하고 圖章을 찍도록 해가지고 分散 解體시킨 것이 바로 文化放送 東亞放送 東洋放送 등등 有數한 民間業體입니다. 이 國家公職者問題에 대해서 國家公權力이 作用해서 公職者를 그 選定基準에 의해서 罷免한다든지 生業을 뺏는다는 것은 또 어떤 次元에서 政治權力關係라든지 特殊權力關係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私企業을 이렇게 職場에서 쫓아내고 私企業의 財產을 뺏었어요. 이 過程이 그래가지고 지금 公營企業이라고 해가지고 KBS MBC로서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言論統·廢合過程에서 야기된 不當한 權力에 의한 生存權剝奪 人權蹂躪 財產權毀損이 관계는 분명히 밝혀서 우리 政體가 共產主義國家도 아닙니다. 분명히 私有財產이 존중되어야 되는 國家입니다. 이런 政體를 大韓民國의 기틀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엄청난 政治權力의 非理는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 결과로써 나온 것의 하나가 또 엄청난 韓國放送廣告公社입니다. 이 放送廣告公社에서 600億 내지 700億의 공짜돈이 생기니까 當時 執權層에서 破顏大笑를 하고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해 냈습니다. 이 정말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放送廣告의 독점으

로써 手數料 「코미션」을 一方的으로 뺏어가지고 조성된 基金이 지금까지 約 2,500億이라는 막대한 資金입니다. 이것을 12代國會 文公委員會에서 여러번 알아 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12代에 在職했던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國調權이 발동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혀 束手無策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부족한 제한된 의미이지만 國政監査나 調查 證人에 관한 등등의 要件이 갖추어진 이 마당에 2,500億이 넘는 엄청난 資金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論告하는 本質問題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의혹을 사고 있고 또 非理에 휩싸인 엄청난 資金의 用途나 支出의 合法性 與否나 이런 것에 대해서 具體的으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영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韓國放送廣告公社는 지금 存廢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存廢問題와는 별개로 言論統·廢合過程에서 일어났던 諸般問題와 放送廣告公社가 조성한 2,500億원 내지 3,000億원이라는 막대한 資金의 內容을 우리國會에서 반드시 審議해서 調查해서 파헤쳐서 國民에게 알려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개 野黨側의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民主正義黨 여러분께서 同意해 주셔서 이것도 30個 項目에 추가해서 우리가 分科委員會가 分擔해서 效果的인 調查活動을 할 수 있도록 事前準備할 수 있는 그런 概念을 여러분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朴實委員께서 調查理由라고 할까요 提案說明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委員長으로서 걱정을 했습니다. 저 說明이 너무 길어지면 아직까지 調查段階에 돌입한 것이 아닌데 이 會議가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적절한 時間에 모든 提案말씀을 전부 다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數 10個의 案을 提案說明을 그래도 간단간단하게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上程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上程을 하는 한은 간단간단하게 提案說明을 해야 됩니다.

물론 提案說明하는데 혹시 異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提案說明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朴實委員의 提案說明을 模範答案紙처럼 이렇게 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提案說明하면 한 세 가지나 다섯 가지정도 提案說明을 듣고 그 다음에 贊反討論을 하는 것이 낫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 時間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重權委員 委員長! 아까 처음에 宣言하시기를 各黨이 오늘 이 3次會議에서 제출할 調査對象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民正黨에서는 지금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平民黨에서는 지금 調査對象에 대해서 일단 提出을 해야 됩니다. 提出을 하면 接受가 되는데 接受가 되고 나서 各黨이 몇 件인지 이 全體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하든지 이 順序를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提出을 하면서 提案說明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時間上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提出을 받아 接受를 받으시고 그 다음 順序로 進行을 하시면 效率的이 됩니다. 아까 委員長이 宣言을 그렇게 했습니다.

○朴實委員 委員長! 그것은 아까 幹事會議에서 나와서 합의했던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淵 이것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委員長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各黨에서 이미 調査事項을 우리 이 委員會에다가 提出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接受는 이미 다 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接受만 되었지 이것이 우리 委員會에서 公式的으로 합의에 도달해서 決議가 이루어져야만 그 때부터 調査對象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 各黨에서 내놓은 것이 이미 接受 上程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중에서 30個는 우리가 說明을 할 필요없이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들 우리가 調査對象으로 하기 어렵다는 異議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各黨에서 꼭 더 追加調査對象으로

삼아야 될 것만 오늘 오전에 대강 해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件數는 지금 나와 있고 이미 上程이 되었다고 보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調査對象選定에관한件이거든요. 調査對象으로서 選定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는 接受해서 그것이 이미 上程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各黨에서 관철될 부분만 지금 選擇해서 이것을 提案說明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金重權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 節次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幹事會議때 各黨이 提出한 案件이 아까 委員長 說明처럼 그렇게 件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이 말씀을 짚은 이유는 그때 提出한 案件중에서 30 가지를 除한 나머지가 오늘 다 上程되었으면 제가 이 發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올라있고 어떤 것은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 接受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委員會에서 決定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幹事會議에서 일단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幹事들이 會議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資料이고 결국 모든 決定은 이 全體會議에서 決定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게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平民黨으로 가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 全體會議에서 各黨이 먼저 오늘 이런 것을 調査하자 하는 對象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트」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 앞으로 이 調査方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提案說明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어야지 처음부터 이것을 버무려서 하게 되면 이 會議가 제대로 進行이 잘 안 됩니다.

○許萬基委員 追加對象項目은 여기 되어 있잖아요?

○金重權委員 아니 그러니까 追加對象項目은 油印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이 油印物에 대해서 提出해 주셔야 됩니다. 油印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所屬代表가 우리가 提出한 것은 이 油印物에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라도 말이 되어야지... 그냥 油印만 된 상태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許萬基委員 똑같은 얘기입니까?

○金重權委員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調査對象을 두고 與野間에 지금 굉장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여기서 會議錄에 남겨야 되는 것이지요.

○趙昇衡委員 그러면 이 油印物은 무엇입니까 委員長님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金重權委員 글썽 그것을 說明하시라는 것입니다.

○金事詐委員 金重權委員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했어요. 平和民主黨은 네 가지 그 다음에 統一民主黨은 17項 그 다음에 共和黨은 9個項을 냈습니다 하고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이것이 제일 첫 會議에 接受한 案件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接受된 것으로 기히 인정하시고 幹事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朴實委員께서 質疑하는 과정에 議題로 채택해 주십사 라고 動議 提案을 하는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平和民主黨은 네가지 項이다 여기에 내가 한 項을 提案要求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아침 4黨 幹事會議에서 民主黨 幹事께서 그러면 이것은 可否 間 討論을 해보자. 이렇게 합의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끌 것없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우리 民主黨 幹事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幹事會議를 主宰했던 이 사람의 見解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시고 金東周委員이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가 平民黨 幹事나가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차례 있었던 幹事會議의 그 동안의 과정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같아서 돕는다는 뜻에서 補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金曜日 10時부터 下午5時까지 4黨 幹

事會議가 첫번째 있었습니다. 그때 4黨의 調査對象을 나뉠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書面으로 事由書하고 같이 提出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두차례 모임에서 확정된 것이 아까 委員長께서 發表하신 대로 30件밖에 안됩니다. 이 30件이외의 것은 最終的인 選擇과 採擇은 全體會議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4黨이 공히 양해하에 합의가 되었더라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는데 도저히 30件이상은 진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金曜日 정식으로 提出했었던 그 범위안에서 全體會議를 통해서 選擇을 하도록 採擇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資料가 이렇게 同僚 여러 委員들에게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實委員이 조금 전에 說明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平民黨黨으로서 提出되어 있지 않은 放送 言論의 統廢合關係에서 있었던 非理問題 이것을 朴實委員이 追加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野團 3黨에서 누가 提案說明을 하든지 간에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共和黨이 되었든지 民主黨이 되었든지 平民黨이 되었든지 우리 野團 3黨은 共同步調를 취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提案說明하고 事由說明한 것은 平民黨 것을 共和黨에서 民主黨에서 하든지 民主黨 것을 우리가 하든지 이 범위내에서 提案說明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양해하에서 우리 平民黨에 들어있지 않은 言論의 統廢合의 非理問題를 採擇해 주면 좋겠다는 提案說明과 事由說明을 朴實委員이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말씀하실래요?

○金東周委員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政黨이나 政派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를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委員長님께서 議事進行을 하는 過程이나 또 우리 同僚 先輩委員님들께서 지적하는 여러 事項이 과연 우리 國民들이 바라는 또 國民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特委活動이 얼마나 진전되어 나가겠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히 疑問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幹事會議에서 主要 30個 議案이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우리 統一民主黨에서 17件 그 다음에 平民黨에서 4件 그 다음에 共和黨에서 9件이 전부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國民 전부가 이 事件에 대해서 疑惑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나 그것은 1次로 우리가 上程한 것을 調査하고 난 이후에 또 아까 民正黨 金重權委員께서도 말씀했지만 수시로 또 主要事項이 발견되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會議進行을 委員長께서 달리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회 우리가 要式行爲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油印物로 배포되어 있는 이 各黨의 案을 전부 採擇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反對意見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效率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反對意見이 없다 하면 오히려 與黨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與黨委員 이전에 特委委員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會議進行을 함으로써 우리가 議題採擇을 가지고 議案採擇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 하는 것은 이것은 國民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案을 委員長에게 建議합니다.

○金 炫委員 저도 金東周委員의 意思에 同感을 하면서 다시한번 幹事會議에서 있었던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民正黨이 스물다섯件 또 平民黨이 열 몇 件 民主黨이 50 몇 件 저희들이 59件을 가지고 나와서 1次 30件의 案件이 確定될 때까지 野黨은 與黨이 내세운 것을 거의 위주로 해서 實質上 野黨인 平民黨 民主黨 共和黨의 의견을 일단 최소 양보하는 의미에서 全體會議에서 나머지를 議決한다는 것을 그때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그나마도 各黨에서 1次分만이지 수시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4黨幹事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올라온 열일곱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만은

그 당시 숫자 4黨幹事들이 거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정도입니다. 다음에 總會에서 하고 하고 서로 미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案件으로 올라갔던 것은 전번에 틀림없이 됐었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全體를 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하면서 反對意見만 들어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黃潤欽委員 저는 民主正義黨의 慶北 月城出身의 黃潤欽委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委員長님과 또 先輩 同僚委員님들께서 정말 진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이 會議를 效率的으로 進行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民正黨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國民의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뭔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野黨委員님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調査對象選定에 관한件을 가지고 지금 論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各黨마다 追加案件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하고 또 提案說明이 있고 난 다음에 原則적으로 한다면 贊反對論이 있어야 하고 또 贊反對論을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各案件別로 과연 이것이 追加對象으로서 할 그만한 根據나 또는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와같은 論議를 하다 보면 오늘 이 追加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실현件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會議時間과 또 時間의 낭비가 뒤따를 것이냐 이와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이 幹事會議에서 합의가 안되고 이 特別委員會 本會議까지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시한번 會議의 效率的인 進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幹事會議에 협의를 붙여가지고 4黨幹事가 합의를 해서 아무 異議없이 全員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順理가 아니겠느냐 이와같이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이 會議에서는 議事案件으로 上程은 되지 않았습니까마는 일응 실현件이 합의가 된 것이니까 그 합의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案件들이 國民들이 봐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고 또 저

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案件들이 felon 件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된 것만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調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여기에서 협의가 되고 또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거나 그러면서 다음 幹事會議때에 追加案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幹事들끼리 다시 또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오늘날의 議事進行에 있어서 調查對象選定에 관한 件이 上程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特別委員會 本會議에서 論議하는 것보다는 幹事會議에서 다시 한번 협의할 하도록 이렇게 本委員은 勸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趙昇衡委員 방금 發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反論을 펴겠습니다.

왜냐 하면 머슴한테 일을 맡겼는데 머슴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主人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방금 發言은 머슴한테 다시 또 맡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主人들이 여기서 결정하고자 하는 마당인데 뭘 얘기는 나오면 좀 制止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會議를 좀 요령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3小委員會가 委員長 關係로 해서 약간 서로 연락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人權關係 平民黨의 調查事件 그 案件이 우리 幹事에게 잘 전달이 안 되어가지고 오늘사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議長께 그것이 전달이 된 것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油印物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지 물어 봅니다. 한번 油印物이 안 나왔어도 불러 볼까요?

첫번째는 不法監禁 長期拘禁 拷問疑惑事件입니다. 그게 백기완 설 혼 이런 사람들 해서.....

두번째는 朴鍾哲拷問致死 隱蔽造作 關係機關對策會議關聯 疑惑.....

다음에 정치공작 政治暴力事件 그것은 鄭雄將軍 「테러」事件과 정당활동 정치폭력방해사건 金大中議長 自宅監禁事件.....

다섯번째 종교탄압사건 그 중에 例를 들면 중요한 것은 계일교회사건 이것은 民主黨에서 나왔습니다. 안산지역노해투사건 방병규전도사

등에 대한 안산지역 노해투사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원각사경찰난입사건 80年10月27日 법난사건.....

여섯번째 노동운동탄압사건 例를 들면 박인균 광산근로자살해기도사건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言論彈壓 報道指針事件 關聯部分입니다. 동아일보 이채주 편집국장등 가혹행위사건

여덟번째 農民運動彈壓에 관한 것입니다. 오한선열사추도식방해 및 납치폭력사건

아홉번째 교도소 구치소 가혹행위사건 안상중등 가혹행위 서울구치소사건 서울구치소 박문식등 가혹행위사건 조유복 윤여연등 가혹행위사건 영등포구치소 김동일등 가혹행위사건 춘천교도소 김병곤 황상규등 가혹행위사건 대구교도소 한덕희등 가혹행위사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방불명 및 의문사사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번째로는 학생 및 일반 例를 들면 박종운 김성수 김상원 기종도 정철현 고정희 박재훈 의문사사건 등입니다.

두번째는 軍部隊안에서의 疑問死事件입니다. 例를 들면 허원근 우인수 정연관 김용권일병의 疑問死事件 이렇게 提出을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民主黨의 盧武鉉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平民黨의 趙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案件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 案件이 다 提案될 價値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오늘 會議가 進行되어 온 과정을 지켜 보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各黨別로 4個 9個 17個의 새로운 案件이 本委員會會議에 제출되고 여기에 대한 贊反討論이 제출되고 提案說明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提案說明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反對討論 전체가 提案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反對討論쪽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合理的이라는 얘기까지 進行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混線이 생겼는데 수시로 案件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시라는 것도 한 節次的 과정에서 하나하나 매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例를 들어서 어떤 事件의 證人訊問한다든지

調査節次가 進行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追加 案件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씩의 매듭이 있어야만이 충분한 案件이 調査가 效率的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平民黨쪽에서 새로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는 進行중에 끼어든 것같으니까 추후 幹事들 하고 다시 合意를 해서... 幹事를 통해서 第2次 案件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별개의 節次에서 다시 추가로 접수하는 것이 오늘 會議進行上 알맞다고 생각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金東周委員께서 제기한 議事進行發言 소위 오늘의 提案說明의 방식에 관한 議事進行發言이 有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正式으로 제출합니다.

○金重權委員 盧委員의 趣旨에 同感입니다. 같은 趣旨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조금 전에 追加調査對象으로 이것이 正式으로 上程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이미 접수된 것으로 보고 提案說明을 생각하고 反對意見이 없으면 自動的으로 調査對象으로 받아들이고 反對意見이 있으면 反對意見만 먼저 듣도록 하는 것이 會議進行上 훨씬 效率的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金東周委員 盧武鉉委員 金 炫委員 여러 분들의 提案으로 판단이 정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金重權委員 아까 各 黨別로 제출할 案件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時間입니다.

朴 實委員께서 平民黨을 대표해서 이미 제출할 案件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順序로 아까 委員長님이 宣稱하신 것처럼 民主黨 共和黨 이런 順序로 제출되는 立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趙昇衡委員께서 3小委員長의 資格으로 또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序頭에 油印된 案件이 전부 이나 확인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趙委員께서 3小委員長으로 資料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1·2·3·4小委員長끼리 보내야 합니다.

아까 盧委員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로 提出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대목이 넘어갔을 때 또 提出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목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節次過程을 거치고 난 후에 매듭짓고 또 다음 필요하면 提出하고 이런 것이 수시 提出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立場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委員長께서는 이미 平民黨의 朴 實委員께서 平民黨을 代表해서 이미 提出이 完了되었으니까 다음 順序로 進行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金東周委員께서 提議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런 所見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議事決定을 함에 있어서 提案者가 있습니다. 그러면 提案者는 왜 그 事件을 提案하는지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立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장에 따른 立證같은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이 正當한지의 與否를 다시한번 反對意見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會議節次의 順序입니다. 어떤 事案의 項目을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反對하는 사람 손드시오 그러면 算術的으로 計算해서 反對하는 사람이 적으면 贊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은 可決되었습니다. 이런 會議論理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 會議가 정말 效率的으로 온 國民이 여기에 視線을 集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따가운 視線을 받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輿野의 가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效率的인 議事進行이 될 수 없도록 委員長께서는 적절히 議事進行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趙昇衡委員 제가 發言한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發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으로서 이것을 提案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議長한테 물어봤습니다. 小委員長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서로 연락이 잘 안돼가지고 人權 또는 人事非理에 관한 調査對象을 누가 提出한 사람이 우리 黨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幹事를 주어서 오늘 提出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油印物이 돌지않기 때문에 議長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提案한 것이 지금 議題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요 했더니 아까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油印物이 곧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거기에 따라서 提案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것이 3小委員長으로서 새로 提出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盧武鉉委員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오해가 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重權委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案件으로 내놓고 反對있으면 몇名몇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같습니다.

문제는 30件이 討論없이도 採擇될 수 있었던 듯이 이 중에서도 反對의 意見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討論에 부치자는 趣旨의 提案을 金東周委員님께서 하시고 저는 거기에 同意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무조건 反對있느냐 그러면 反對 몇名이나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30件이 幹事會議에서 討論이 없이도 採擇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서도 具體적으로 反對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討論을 하면서 效率的이다 이런 뜻입니다.

○金重權委員 趣旨은 똑 같으니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幹事會議에서 討論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討論이 있고 난 후에 결정되어서 30件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自動적으로 나머지 件에 대해서는 意見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다른 意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提案者가 提案說明을 하고 立證趣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會議順序가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李基濶 아직도 會議進行을 가지고 出發地點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各自는 다 會議進行을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發言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절대로 다는 아니고 상당한 發言이 效率的인 會議進行에 오히려 逆效果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反省해 보면서 지금 會議 시작한 지가 約 두 時間이 되고 있습니다.

國會法에 國會運營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會議하면서 자유롭게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반발한 會議進行에 대해서 우리 마음 좀 털어놓고 얘기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分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16分 會議中止)

(17時1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濶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하고 난 후에 幹事會議를 해 보았습니다. 停會이전에 會議가 조금 질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이나 그리고 續開를 하면 어떻게 會議를 원만하게 效率的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幹事會議를 했습니다.

結論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大體的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午前에 4黨 幹事會議에서 합의를 본 平民黨의 調查追加對象으로 4個案 그 다음에 民主黨 17個案 共和黨 9個案에 대해서 아까 朴實委員이 먼저 提案說明을 했습니다마는 各黨 순위로 提案說明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짧은 시간내에 그러나 要點은 전부 다 포함시켜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提案說明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案件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調查對象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提案說明 이후에 우리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4黨 幹事間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4黨 幹事會議의 合意事項을 존중해서 會議進行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平民黨 金奉旭委員께서 새마을非理와 證券市場關係를 追加調查對象으로 합의를 해야겠다는 提案說明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奉旭委員 먼저 本委員이 提案說明하기 전에 서두에 못을 박아 두어야 할 것이 지금 證券市場 證券去來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昨年에 4·2措置에서 8월까지에 국한된 그 부분만 調查를 하자는 것이니까 혹시 또 잘

못돼가지고 證券街에 惡影響이 안가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고 提案說明을 합니다.

12代 國會末에 本委員이 證市造作에 대한 國政調査要求를 당시에 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참고로 할까 해서 나누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昨年 4月2日 4.2措置를 했습니다.

4.2措置 內容은 證券監督院이 證券監督委員會의 委員長이 外國에 간 사이에 財務部次官 韓銀總裁 그리고 證券監督院의 理事 이렇게 다섯 분이 證券管理委員會 準則改正을 했습니다. 그 準則改正內容의 골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충 세 가지 業種 建設株 保險株 銀行株 이 세 가지 業種을 各 證券會社 銀行 保險會社가 4.2措置에서 전부 규제가 되고 自己資本 100分の 6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準則改正을 100分の 1로 改正을 했습니다.

100分の 1까지 갖고 그 이외에는 전부 市場에 내 놓아야 된다... 이 措置以後에 4.6 措置를 했습니다.

4月6日是 어떤 措置를 했느냐... 證券을 사는 사람 證券市場에서 株式을 사는 사람은 3萬株이상 1億원이상 高額을 사는 사람은 署名과 아울러 住民登錄番號를 붙여서 그래서 高額去來者를 月末로 해서 그 다음 10日까지 證券監督院에 보고를 하라고 準則을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財務委員會所屬으로 있을 때 이것을 國政調査 要求를 냈더니 당시에 常任委員會에 나와서 證券監督院長은 住民登錄을 붙여서 高額去來者의 名單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의외의 문제가 확대되어서 이것을 전부 소각했다 이렇게 答辯했습니다. 答辯書에 다 나와 있습니다. 關係書類가 다 있는데 자꾸 짧게 하라고 그래서 다 說明을 못 하겠습니까마는 여기 4.2措置에서부터 4.6措置 4.8 措置까지 전부 準則改正한 것은 本委員이 資料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證券監督委員會에서 會議錄 여기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起案說明한 것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전부 한 部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株式의 변동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당시에 本

委員이 常任委員會에서 제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委員들한테 配付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8.3經濟措置보다도 더 엄청난 4.2措置와 4.6措置 4.8措置 연거푸 세번 措置로 인해서 강제로 證券關係 會社들은 전부 株式을 강제로 내놓게 하고 사는 사람은 물론 法人은 못합니다. 지금 住民登錄番號붙여서 명단까지 제시하라고 했으니 사는 사람도 3萬株이상 1億원이상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物量이 엄청난 숫자가 市場에 나왔습니다. 무려 4月 5月 證券去來 總額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누가 샀느냐... 證券監督委員會에서는 이 문제가 확대되니까 그 資料를 소각했다 이러는데 이것을 아마 우리 本 委員會에서 調査하면 그 명단이 충분히 어느 特定團體에서 사가지고 一般庶民도 못사게 하고 一般人도 못사게 하고 이 株式이 어디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調査를 하면 백일하에 아마 99% 노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무쪼록 여러 委員들이 이 提案을 可決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도 짚막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맛이 있을텐데 또 委員長한테 눈밖에 나면 이 다음에 發言權도 안주실 것같아서 이런 정도로 提案說明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運動中央本部の 調査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運動中央本부의 非理와 관련돼 全敬煥 씨가 拘束되어 裁判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는 輿論이 빗발쳐서 이것을 國會가 별도로 調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아울러 提案說明으로 대할까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平民黨이 提案한 案件中에서 마지막으로 80年 公職者肅正에 관해서 朴 實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 實委員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과 性質上으로 類似性이 있어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은 言及하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公職者肅正 또는 그 復職問題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많이 論議가 되었습니다. 國會次元에서... 그러나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當事者라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5共和國이 私企業에서 從事하는 言論從事者에 대해서는 約 7,000名의 職業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지금 部分的으로 復舊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公務員도 엄청난 數字의 生存權을 박탈당했습니다. 단 公務員은 公的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私的 企業에서 言論人을 肅正이라는 이름아래에서 生存權을 뺏은 것과는 조금 구분이 다릅니다.

倫理規定도 있을 것이고 公務員規定에 어긋나는 수도 있을 것이고 採用過程에서 政治性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事項을 私企業과는 조금 구분해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數字는 정말 엄청납니다. 80年代 지금 公式的으로 非公式的으로 알려진 解職者數는 公務員이 5,699名 約 5,700名으로 集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政府投資機關 및 傘下團體任職員은 3,178名 그래서 都合 8,878名인데 근 9,000名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목이 삭둑삭둑 푹푹푹 다 잘려져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9,000名이라는 數字도 自救努力을 하기 위해서 각종 團體들이 있습니다. 復職委員會 復職團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하고 登錄된 數字지 復職을 하지 않는단든지 체념을 해버렸단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萬名정도가 되지 않느냐..... 엄청난 數字의 國民이 生存權이 박탈되고 부당하게 人權을 유린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政府에서는 資料가 없다 없다 해가지고 11代나 12代 國會 때 조금 論議가 되었지만 전혀 성의 있는 措置가 없었습니다.

당시 國保委는 이런저런 肅正基準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당시의 政治的 狀況과 國保委의 存在 設立目的이라든지 여러 가지 前事情으로 볼 때에 이것은 政權을 잡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부당한 政治的인 彈壓이었고 方法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萬餘名이나 되는 사람들이 脫法的으로 人權을 유린당하고 生存權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悲憤慷慨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실의와 체념속에서 臥病中이고 精神異狀 들린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헤매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經濟的인 非理와 次元을 달리해서 言論統合一이나 이 관계에서 나온 非理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國民 또 특히 公僕으로서 從事하는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 내지는 특별히 身分을 보장하는 公務員 關係法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이래가지고 분명히 그 過程과 非理를 考察해서 剔出해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같은 文明社會에서는 있을 수 없는 野蠻的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意味에서 절대 國會次元에서 調査가 必要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與黨에서도 상당히 不當性에 대해서는 認定을 하고 단 너무 7年이든 8年이든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原狀復舊를 하느냐 하고 難色을 表示하고 또 豫算上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過程을 정확히 國會가 파악해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이 또 本 委員會의 活動指標가 아닌가 目標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우리 特別委員會의 調査案件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철저하게 「메스」를 加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記錄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역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양철하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手苦하셨습니다. 朴實委員 그리고 金奉旭委員 두 분께서 平民黨에서 追加調査對象으로 80年 公職者肅正 새마을非理 證券市場關係 韓國放送公社收益金 支出關聯 및 韓國 言論統·廢合非理 이 다섯 個의 提案說明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統一民主黨 調査追加對象 項目으로 열일곱 가지를 提案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平民黨에서 이미 提案說明하신 것을 될 수 있으면 생략토록 하고 이 追加項目이 많기 때문에 金奉祚委員 金東圭委員 金東周委員 姜信玉委員 이렇게 네 분이 分擔해서 提案說明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錦湖「그룹」 第2民航許可關聯非理金奉祚委員 그 다음에 88飛行船導入關聯非理세번째 靑瓦臺 등에서 接受한 各種 誠金內譯과 사용한 의욕 그 다음에 내번째 明星事件關聯非理 이 네 가지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奉祚委員 民主黨의 金奉祚委員입니다.

本委員은 5共非理 本 委員會에서... 錦湖「그룹」에 대해서 第2民航을 許可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發展하는 우리 社會에 발맞추어서 필요하다 하는 견해의 시각도 있었습니 다마는 또 그렇지 아니한 反對意見도 있을 것입니다.

아몽은 政府에서 許可를 하는 業體에 대해서는 그 事業이 과연 妥當性이 있는가 또 어느 業體가 得하는 것이 보다 더 效率的인 것인가 또 當該部處에서 實務者들이 부단하게 서로가 會議를 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또 현장을 충분히 익혀가지고 필요할 때 그렇게 위의 政策決定을 하는 上級者에게 올려가지고 決定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常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調查過程에서 소관되는 交通部의 長官이 交選委員會에서 答辯을 한 부분을 우리가 다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이 交通部에서는 아무런 서로가 可否問 許可의 妥當性 여부를 實務者들이 會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 이 6共和國이 國民의 함의로 總選을 치르고 우리가 그때 期日이 87年12月16日로 압니다. 그래서 아몽은 여러 가지 異論이 있었습니 다마는 그래도 國民의 함의로 大統領直選制를 해서 盧泰愚씨가 大統領에 當選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先例를 볼 것은 없습니 다마는 아몽은 새롭게 大統領이 誕生되면은 그 任務中인 大統領은 다음 大統領을 위해서 자기가 그 간에 있었던 모든 行政的인 또 政治的인 문제에 대해서 政權을 引受하고 또 引繼받는 그러한 準備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기 제가 交通部의 民願接受臺帳을 떼어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接受를 하고 언제 民願을 許可를 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것 한번 보십시오마는 이것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마치 「사이공」

最後의 날과 같이 全斗煥씨가 大統領職이 補了되는 24日 靑瓦臺에서 이것을 許可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擔當局長은 그 당시 外國에 있었습니 다. 날벼락으로 交通部에서 받아가지고 許可되었습니다. 이렇게 處理했어요. 여기에 보면 接受日字가 88年2月20日字입니다. 그런데 결정한 날이 2月24日로 되어 있습니 다.

우리가 꼭 필요한 일 또 國民들이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일일수록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國民앞에 내놓을 때 과연 떳떳하다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참 共感帶를 갖는 것입니다. 뭐가 급해서 무슨 일이 있길래 全斗煥 前大統領은 바로 辭任하는 그날 이러한 엄청난 民願을 자기가 처리해야 됐는가... 여기에는 온 國民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數百億을 뒤킸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책임있는 政治人으로 상당히게 비중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言及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신 이것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5共和國에 한해서 있었는데 새 時代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委員會에서 신중하게 다루서가지고 정말로 어떠한 非理가 있고 어떠한 不正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캐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本委員이 議事日程으로 採擇해 주십사 하는 提案說明을 드립니다.

그리고 88飛行船導入 관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空中衛星으로 띄워 올려가지고 상당히 放送이라든지 여러 가지 危險으로부터 監視體制에 필요하다 아마 이렇게 해서 86年7月에 株式會社 韓國飛行船이 이 88飛行船 輸入을 할 수 있도록 許可를 得했습니다. 그 래가지고 87年7月에는 「올림픽」組織委員會에서 이 株式會社 韓國飛行船 이 會社에 대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다시 말해서 廣告도 내고 우리 나라 유수한 많은 會社들이 誠金을 내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준비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公式的으로 交通部가 許可도 하고 「올림픽」組織委員會가 승인을 한 이런 節次를 다 많은 會社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두 개 새개 空中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띄우는 이러한 飛行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뚱하게 治安本部와 安全企劃

部 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상당히 利權에 개입이 됐다 그래서 監査院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價格이 英國의 飛行船製作會社 AIL社로부터 처음 얼마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첫 見積書에서 420萬弗에 納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建化企劃이라고 代表가 인풍순씨입니다. 이 사람에게 安企部와 治安本部 이 사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고 이것이 돌쫓날쫓입니다. 體系도 없고... 그래가지고 몇몇 業者에게 輸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報道에 의하면 이 飛行船이 釜山稅關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울퉁퉁을 위해서 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울퉁퉁은 닥쳐오고 어찌하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眞否를 가려가지고... 이 價格이 600萬弗에 建化企劃에서 契約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180萬弗의 外債를 유출한 이런 經濟非理입니다. 이 背後에는 長官이나 安企部の 職員 정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事故는 이제 없애자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이런 보통사람들이 節次에 의해서 適法하게 제출하고 또 過程을 거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權利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本委員이 말씀드리는데 第2項 88飛行船 導入關聯 非理도 議事日程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저의 提案說明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民主黨에서 접수한 8項입니다. 靑瓦臺 등에서 접수한 各種 誠金內譯과 사용에 관한 疑惑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많은 企業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나라의 經濟水準을 이와같이 이끈 것은 經營主와 물론 勤勞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많은 企業들이 많은 큰 疑惑으로 시작을 했습시다마는 그 결과는 중간에 倒産된 會社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本意아니게 判定으로 不實認定을 받은 會社도 있습니다마는 力不足해서 그렇게 亡한 會社들도 많습니다.

不實企業에서 나타난 金融의 惠澤을 보면

金融과 稅制上으로 約 9兆2,000億원을 우리가 國民負擔으로 말하자면 第3者 引受業體에게 惠澤을 준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企業體들이 열심히 한 業體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不可抗力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든 그런 會社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이유를 이 準租稅 誠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 財務委員會에서 財務部長官에게 資料提出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本委員이 國稅廳에 낸 資料提出이 約 7年間的 誠金이 얼마나 그리고 營業外 管理費가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個人이나 法人體할 것 없이 稅制惠澤을 받기 위해서는 各種誠金이나 寄附金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申告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年度分을 漏落시켰습니다.

그리고 87年度 작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各種 여러 가지 準備... 選舉를 위한 準備도 있었겠습니까마는 大統領選舉도 있고 이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87年 誠金 寄附金이 부분도 提出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國民들은 그 간에 많은 豫算執行과 이 誠金에 대해서 사실 疑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誠金이며 防衛誠金 무슨 各種 불우이웃 돕기誠金 심지어 새세대育英會 뭐 이름을 지워버렸다 합니까마는 가부간 밝혀질 것 아닙니까? 이러한 各種 誠金들 때문에 荷重이 너무 많게 실력으로 會社가 손 놓았다 그러한 會社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마을誠金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言論會社를 통해서 또 各部處를 통해서 募金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總集計는 靑瓦臺에서 했다 靑瓦臺에서... 또 自動的으로 靑瓦臺에 다 報告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5共和國이 생겨가지고 모든 各種 誠金 寄附金 이 總額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 執行을 바로 했느냐 事業을 어느 정도 執行을 하고 그 殘金은 얼마며 또 그 果實金 利子는 어느 정도 불어났느냐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個別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調查過程에서 보다 더 細部的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國民의 疑惑 과연

誠金を 그 목적인 誠金의 名目대로 잘 執行을 했으며 또 정확한 額數를 國民에게 밝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國民의 至大한 關心事입니다. 그러므로 當 委員會에서는 全斗煥 前大統領이 접수한 各種 誠金에 대해서 當事者로부터 분명한 答辯을 들어야 우리 國民이 속시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黨에서 낸 8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委員會에서 議事日程으로 採擇해 주기를 바라면서 提案說明에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奉祚委員께서 錦湖「그물」第2民航許可關聯 88飛行船導入關聯 그리고 各種 誠金內譯과 使用에 관한 疑惑 이 세 가지 提案說明이 있었읍니다.

다음에는 統一民主黨의 金東圭委員께서 地下鐵公社에 관련된 非理 그 다음에 張玲子어음詐欺事件關聯非理 또 明星事件關聯非理 이 세 가지에 대해서 提案說明이 있겠읍니다.

○金東圭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圭委員입니다.

서울地下鐵疑惑事件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黨에서 많은 調査를 했읍니다.

일부 報道도 되었읍니다마는 이 事案 자체가 소위 庶民의 交通手段인 地下鐵이 市民의 발인데 그것을 擔保로 해서 權力層이 엄청난 不正을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깊은 분노의 感을 表示하면서 要點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地下鐵에 있어서 1號線에서도 말쟁이 있었읍니다. 그 때에 日本企業에서 1號線 電動車を 사왔었는데 그 때에 日本의 「메스컴」이나 議會에서 폭로가 되어가지고 시끄러웠읍니다. 그러나 그건 5共非理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學論을 안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電動車 2·3·4號線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輛當 英國 GEC에서 5億3,000萬원씩 購買를 했읍니다. 그런데 釜山地下鐵의 경우에는 性能이나 品質이 월등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3億3,000萬원에 購入을 했읍니다. 1輛當 差額이 2億이 났읍니다. 數量이 504輛이기 때문에 1,008億이라는 不正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金在明 서울地下鐵公社社長 그리고 朴英秀 서울市長이 青瓦臺 指示에 의해서 가장 비싼 電動車を 契約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도 業界間에 말쟁이 있던 事件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00億이라는 돈이 엄청난 庶民負擔을 加重시켰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은 적어도 庶民의 발을 擔保로 權力者가 介入해서 비싼 값으로 電動車を 購入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破해치고 權力者 누가 어떻게 介入해서 이러한 國際入札이 20個 社나 入札을 했는데 그 당시의 소위 入札過程이라든가 또는 各社의 入札內譯의 比較表를 우리가 分析하면은 충분히 問題點을 지적하고 國民의 疑惑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地下鐵疑惑事件은 반드시 議題에 決議를 해주셨으면 하고서 첫번째 말씀드립니다.

물론 地下鐵에는 金在明社長이 人事非理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地下鐵의 社員住宅을 지으면서 그것을 卍林建設이라는 데에서 契約을 해가지고 會長이 全基煥씨입니다. 約 60億원 정도를 비싸게 分讓시켜서 卍林建設側에 暴利를 취하게 한 그러한 事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地下鐵의 문제는 이번 5共非理의 調査對象에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張玲子事件입니다. 이 事件은 그 동안 「매스컴」이나 또는 裁判過程을 통해서 많은 物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張玲子事件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 事件自體가 어떤 銀行長이나 銀行關係官이나 例를 들어서 財務部長官이나 副總理線에서 指示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事件이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로알 패밀리」에 關聯說이 짙게 깔려 있는 事件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 하면 張玲子 李哲熙 夫婦가 共榮土建 등 6個 會社에 576億원을 貸與해 주고 7,111億원의 어음을 받아내 그것을 擔保로 銀行貸出을 때내서 貸與元金 相互어음 交換分 未使用어음을 除外하더라도 1,341億원이 行方不明이다 이겁니다. 檢察結果 나온 것입니다. 檢察에서는 證券投資를 해서 밀린 것 不動產投機를 해서 좀 밀렸다 骨董品을 샀느니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1,341億원이나 되는 돈이 證券을 얼마나 크게 움직였길래 밀렸단 말입니까? 반드시 그 당시의 權力層과 연결된 政治資金으로 一部 流用됐을 可能性이 짙다는 世間의 疑惑이 있

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알 페밀리」의 관련 의혹 두번째로는 1,341億원을 어디에 썼느냐 事案自體가 문제가 아니라 張玲子 李哲熙가 그 큰 돈을 短期間에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은 이 特委에서 반드시 調査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刑事處罰의 問題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5共非理를 調査하면서 大型金融事件 몇 가지만은 반드시 이번 調査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의 提議를 받아들여서 張玲子事件을 調査對象에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두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明星事件입니다. 이것도 骨子만 말씀드리면 소위 金澈鎬하고 商業銀行 惠化洞支店에 있던 김동경代理라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手記通帳에 變則造成한 資金이 1,066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달內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79년부터 83년까지 4년에 걸쳐서 變則造成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개 代理가 金澈鎬會長과 자고서 이것이 가능했느냐 1,066億입니다.

따라서 市中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李圭東 「로알 페밀리」지요.

李圭東과 金澈鎬會長하고 關聯이 되어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大型金融事件의 代表的 「케이스」로 다루어 놓는 것이 앞으로의 金融自律化를 위해서도 官治金融을 根絶하기 위해서도 본때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調査對象에 넣자는 것을 말씀드리빈다.

끝으로 朴實委員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補充說明을 올리겠습니다.

80年 解職公職者問題입니다. 저 자신이 그 당시에 解職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때 事由와 事情과 狀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긴 설명보다도 한번의 調査를 받은 사실도 없고 한번의 問議電話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그 部處에서 일케나 하는 사람 말케나 하는 사람들이

1次的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解職이 되었다는 것을 補充해서 말씀드리고 또 解職을 시켰을 뿐 아니고 1年동안 일체 就業禁止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公務員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法에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自殺을 한 사람까지 있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런 사실이 발생했겠는가 그래서 80年 解職者問題는 5共非理特委에서 人事非理의 첫번째 「케이스」로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補充해서 설명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칠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이 伽倻山 觀光團地造成에 관련된 非理 汎洋商船關聯疑惑 美國產鎔輸入關聯非理 소위 三全暴利事件 政黨活動에 대한 政治暴力彈壓非理 이 네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먼저 提案說明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各黨이 提出한 모든 案件은 與黨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부가 채택이 될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統一民主黨이 提出한 17件은 저희 黨所屬特委委員들과 專門委員들 이런 분들이 며칠間을 밤잠을 자지 않고 참 신중하게 다루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委員長께서 提案說明을 하라는 부분 이전에 저하고 같이 提案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重複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中央本部의 關聯非理가 30個 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政黨에서는 裁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反論을 제기했다는 說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中央本部의 全敬煥씨는 바로 大韓民國의 最高 統治權者인 全斗煥씨의 實弟입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는 全世界에 우리 大韓民國의 國威를 엄청나게 손상시켰습니다. 또 우리 全國民이 지금 관심을 가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伽倻山 觀光團地造成方案에 대해서 提案說明드리겠습니다.

全斗煥씨의 丈人 李圭東씨의 고향이 慶北 星州郡 修倫面 白雲洞입니다. 이 伽倻山 일

대를 國立觀光團地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檢討도 충분히 하지 않고 일부 長官과 지나친 公務員들이 이런 計劃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여기는 國立觀光團地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실제 觀光事業을 추진하다가 83年 2월에 中斷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國民의 血稅를 얼마나 손실시켰느냐 하면 지금 현재 國費 13億5,000萬원 地方費 18億2,000萬원 이래서 31億7,000萬원과 그 다음에 또 進入路工事を 한다 이래가지고 38億원 合計 69億7,000萬원 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 國民의 血稅 즉 大韓民國의 豫算을 낭비하고 지금 필요없는 것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調查委員會에서 調查를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가 우리 朴實委員會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韓國放送廣告公社의 收入金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80年度 立法會議에서 放送統廢合과 放送公營化 過程에서 바로 韓國放送廣告公社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하나의 機關을 -탄생시켰다 이말입니다.

또 設立目的이 公共에 奉仕하는 放送廣告體制를 定立하고 言論公益事業을 支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이 목적을 가진 우리 廣告公社는 81년부터 87년까지 7年間 2,500億이라는 資金을 조성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設立目的外에 「골프」場을 建設하고 또 심지어 外國政治人들에게 「로비」資金을 주고 도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 國內 政治資金에 들어갔다 하는 說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우리가 調查를 해서 是正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汎洋商船에 관한 疑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汎洋商船은 79年度에 負債比率이 約 800%입니다. 資本金의 80%입니다. 그런데 이 企業이 89年度에는 約 5,800%입니다. 또 이렇게 不實企業에 결국 政府는 海運合理化計劃에 따라서 83年度에 三美 三益 世邦海運 등을 吸水 合併을 해주었습니다. 特惠를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經營陣의 紛糾으로 인해 가지고 朴健碩會長이 自殺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韓相淵 前會長이 ..... 100億원라는 이 엄청난 疑問의 돈이 지금 行方이 없습니다.

물론 檢察이 搜查를 했습니다마는 이 100億이 全國民은 우리 政治人들에게 「로비」資金으로 들어갔다고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第5共和國를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분명히 이 100億의 行方을 밝혀야 됩니다.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상당한 額數 즉 1,644萬弗이라는 엄청난 外貨가 流出했는데도 이 돈을 政府는 찾아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政府는 그 뒤에 아무 이야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 또 돌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韓相淵씨의 前 ..... 지금 현재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內緣의 妻라는 김희평씨 이 분하고 張玲子씨와 또 현재 李順子씨의 三角關係가 우리 全市民들이 다 알고 國民들이 다 아는 아주 친분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00%나 되는 이 不實企業에게 이런 特惠를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는 분명히 調查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美國 쌀 輸入에 관련된 非理입니다.

방금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소위 3全暴利事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事件은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書類를 정리하고 있으니 某 與黨議員이 저에게도 電話를 해서 이것은 이미 11代 12代 國會에서 擧論이 되고 小委員會까지 다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때를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11代 國會에서 81年 3월에 外米導入真相糾明小委員會를 構成했습니다마는 그 速記錄에 보면 우리 野黨 議員들의 少數意見이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真相調查小委員會를 構成하였으나 당시 權力介入에 대한 부분에는 接近하지 못했다 이것이 1項입니다.

2項은 調查報告書에서 國政調查權이 없는 制限된 調查活動으로 賂物接受 등에 대해서는 調查를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13代는 이제 國政調查權을 發動할 수 있는 國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1代 12代에서 하지 못한 이 엄청난 이 農民을 울린 이 事件은 꼭 다시 檢

討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가해서 이야기하지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3全暴利 …… 이 3全이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술씨 3兄弟가 介在된 事件아 됩니까? 이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收買價가 凍結이 되고 그 다음에 秋穀 收買價格을 더 引上하지 못 했고 또 심지어 政府는 막대한 倉庫費를 負擔을 했고…… 倉庫 保管費입니다.

또 심지어 倉庫에서 썩어나간 쌀이 얼마나 됩니까? 消費가 안되고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濁酒製造工場에서 쌀이 모자라는 것을 썩는 쌀을 處分하기 위해서 다시 쌀을 消費하게끔 만드는 …… 바로 이 연관된 事件입니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全 政治人이 지금 현재 골치를 앓고 있는 農家負債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느냐 …… 이로 인해서 이 事件은 꼭 調查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政黨活動에 대한 政治暴力彈壓非理事實 참 우리가 그런 事實이 있었는지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 事件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野黨인 그 당시 統一民主黨의 創黨過程에 87年4月20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5日間 仁川地區黨이나 冠岳地區黨 그리고 19個地區黨 創黨大會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용팔이事件입니다.

白晝에 數百名이 角木과 쇠「파이프」를 들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政治의 目的에 참여하지 않은 길거리에 가는 「세단」車고 「봉고」車고 마구 때려부수는 이 無法天地의 이 事件 지금 왜 犯人을 못잡느냐 이 말입니다. 犯人은 분명히 지금 서울 시내를 으적이 살고 있다는 이 용팔이를 檢舉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秘密이 없다듯이 最近에 仁川市警이 發刊하는 87年度 主要事件이라는 記錄에 보면 이 警察이 그 現場에 있어도 잡지 못한 原因은 上部의 指示가 없어서 못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警察署에서 發刊하는 것입니다.

또 이 事件은 政治的인 事件이기 때문에 警察은 방관했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常任委員會에서도 그렇게 答辯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警察이 이 事件을 搜查하는

데 있어서 너무 指揮系統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搜查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警察은 警察署 다음에 局이 있고 局 다음에 治安本部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內務部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갈래에서 소위 某機關 등등에서 調整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犯人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의 이 政治彈壓事件은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이 6共和國에 있어서는 분명히 調查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提案說明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廷華委員 議事進行發言하시요.

○徐廷華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徐廷華委員입니다.

지금 長時間동안 平民黨하고 民主黨에서 提案說明을 하는 內容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金東周委員께서 美國쌀 輸入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는데 某 與黨議員이 「로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某 與黨議員이든 公式席上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國民이 보는 시각에서 與黨이 件件히 調查를 안하려고 하는 이런 印象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個人的으로 親分關係로 해서 얘기를 주고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지 확실히 이름을 밝혀 가지고 國民이 그런 視角으로 보지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께서 이것에 대해서 發言하신 委員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이 分野에 대해서 金東周委員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周委員 분명히 우리 特委委員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民正黨委員으로서 多選議員인데 저에게 이야기가 이것은 國會에서 特別小委員會까지 만들어 가지고 調查를 했으니깐 다시 國會에서 調查를 한다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서 國會는 個個人이 立法機關입니다.

저는 어떤 저 밑에 機關도 없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情報나 모든 秘密을 또 保

護해 줄 수 있는 權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여기 特別委員中에서 없다는 것……

○徐廷華委員 됐습니다. 그러나 國民이 보는 視角에서 民正黨이 調査하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됐습니다.

다음은 朴鍾哲 金權泰씨등 民主人士에 대한 人權蹂躪 非理 그 다음에 佛敎法難 第1敎會 暴力事態 및 宗教壓力 다음에 김성수씨 등 強制徵集 學生의 變死事件관련 疑惑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統一民主黨의 姜信玉委員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姜信玉委員 統一民主黨의 姜信玉委員입니다.

소위 5共和國에 있어서의 權力型 非理 이런 것을 지금 調査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事件들이 대부분 전부 돈에 관련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지만 제가 지금 調査를 하자고 하는 것은 人權問題입니다. 특히 그 중에 朴鍾哲군 拷問致死事件 또 金權泰씨등 民主人士에 대한 소위 時局事件 關係者들에 대한 拷問 혹은 人權蹂躪 非理 이것을 調査해 줄 것을 提案합니다. 그 이유는 저 자신이 職業과 관련해서 날마다 職業을 먼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역시 法治國家고 憲法에 따라 지배되는 憲法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5共和國도 그런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5共和國 憲法에서도 拷問은 禁止된다 拷問은 해서는 안된다 라고 憲法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全斗煥政權 즉 5共和國에 있어서 실제 憲法上 禁止되어 있는 拷問을 制度的으로 組織的으로 官權이 介入돼서 時局事件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해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5共和國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歷史的 過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 大韓民國 國家를 解放直後 세우면서 처음부터 민족정기를 바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親日派들을 그대로 우리 政府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또 指導者로 그 사람들을 쓰고 이러는 바람에 소위 獨立運動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되고 親日을 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이런 歷史的인 過

誤를 되풀이해 온 것이 우리나라 歷史에 크나큰 비극을 초래한 아주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언제나 느껴온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共和國때 소위 時局事件을 搜查한다는 사람들이 警察官들이 아니면 安企部職員들이 아니면 保安司職員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구실로 모진 拷問을 거의 組織的으로 다해 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個人的인 차원의 무슨 處罰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歷史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려면 그 문제 하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朴鍾哲군이 죽었을 때 저는 新東亞에 글을 쓰면서 全斗煥 大統領이 憲法守護의 義務가 있습니다. 大統領은 就任式에서 宣誓式을 하면서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家를 保衛하며..."라는 宣誓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憲法을 遵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拷問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宣言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南營洞이라는 그런 對共分室을 만들어놓고 또 保安司라는 機構를 통해서 혹은 安企部를 통해서 모든 時局事犯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거의 組織的으로 拷問해 왔다는 사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拷問이 隱蔽되지 않고 실수로 朴鍾哲이가 죽은 것이 알려지자 마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朴鍾哲은 제가 알기에는 그 중의 한 사람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그 朴鍾哲이가 調査받았던 南營洞 地下室을 지나간 사람들은 拷問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金權泰 특별히 제가 金權泰를 한 사람 들었습니다마는 金權泰와 같은 사람 張璣杓 그 南營洞을 지나갔던 被害者들 모두가 다 엄청난 拷問을 당했습니다. 拷問을 당했지만 용케도 살아남아서 裁判을 받고 현재는 金權泰는 釋放이 돼서 바깥에 나와서 人權賞을 받는다 하면 良心囚의 代表的인 人物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자기가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호소하고 다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5共和國에 있어서의 權力型非理를 얘기한다면 이 拷問致死事實 拷問事實 이것이 또 金權泰

만拷問한 것이 아니고朴鍾哲만拷問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時局事犯에 대해서 거의 예외없이 해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쫓아낸 자신이 제가 보기에는憲法을守護하지 못했고 결국은彈劾돼야 될 사람이任期를 마치고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金權泰問題는朴鍾哲問題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그兩營洞이나安企部나保安司에서拷問했던組織的인官權의暴力行爲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는 다시 우리後孫들에게朴鍾哲군과 같은 희생자가 안 나오고金權泰와 같은 희생자가 안 나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法대로拷問이 없는 나라 이것으로 우리가 좋은 나라를建設하는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는 감히 이 문제를 이調査對象에서 삼기를 바랍니다 것입니다

지금金權泰朴鍾哲이가 남의 아들 얘기 같이 들리지는 우리委員님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 아들 문제입니다. 내 동생의 문제고 내 조카의 문제고自己家族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주 심각하게 느낄텐데 남의 일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警察官들이 나라를 위해서北韓共產集團을搜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時局問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돌아 다니고 전방지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듣긴 듣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문제고 내 아들의 문제고 내 동생의 문제고 내 조카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問題를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 적어도拷問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問責을 하고組織的인拷問方法에 대해서는 우리國會가 차원 높은調査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朴鍾哲에 대해서는搜查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 하고反問할지 모릅니다. 현재朴鍾哲군事件을 통해서나 혹은權仁淑양의事件을 통해서나檢察에서搜查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檢察은司法權이獨立 안 됐듯이檢察도獨立 안 된 상태였고 또組織的인拷問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政府에서隱蔽하려 하였다는 추측을 남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國民들이 궁금해하는關係機關對策會議 그리고 또拷問했던 사람 그 사람 말고 다른 같은職場에 있었던 다른刑事들 다른職員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가證據가 없기 때문에拷問을 안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治安本部對共分室 그 자체가 하나의拷問을組織的으로 해 왔다는 이런 문제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적어도國會次元에서調査하지 않고서는 그런眞實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民正黨쪽에서原則으로 내세우고 있는司法的인處理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調査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뜻에서 이國會의特別委員會가 아니고서는 적어도關係機關對策會議라든지檢察에서調査 못한部分을 파헤칠 수 있는機關은 없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적어도 이번非理調査委員會에서 이것은調査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提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第一教會하고法難問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月27日法難問題는 지난 80年 10月27日戒嚴司와軍警이合同으로形式的으로는宗權掌握을 위한派閥싸움의종식이라든지 혹은寺院의兵役忌避者暴力詐欺模倣 등의前科者索出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총칼로武裝한戒嚴軍이曹溪宗總務院하고全國寺刹에 난입해서 당시송월주總務院長을 비롯해서 46명의 승려들을 연행하고 또 이 과정에서暴力侮辱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樂山寺住持스님이調査過程에서拷問後遺症으로死亡까지 했습니다.戒嚴司는 또 80年11月曹溪宗의不正蓄財가 2億6,000萬元이라고 말하고曹溪宗에서는 이것이事實無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2億6,000萬元 그額數에 대해서使用處가 분명치도 않고 이것이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 여러가지 의심을 주는 그런事件입니다. 이것도 이제朴鍾哲군에 대해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法律을 가지고 어떤宗教에 대해서法的인處理를 한 것이 아니라法을 초월해서 폭력으로宗教를佛敎를 탄압한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宗教의自由라고 하는 것은 우리人間基本權의 가장

중요한 자유중의 하나인데 이 宗教의 자유를 폭력으로 적어도 權力으로 폭거를 했다 그러면 많은 돈도 의혹적인 사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이 점에서 이번의 5共非理를 조사하는 우리 委員會에서 宗教彈壓에 官權이 동원이 됐다 政府가 관여했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를 提案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일教會事件입니다. 제일教會는 박형규牧師가 그 教會指導者로 있는 것 때문에 마치 박형규牧師가 容共牧師다 그리고 박형규牧師가 사사건건 政府에 저항을 하고 政府에서 그렇게 달갑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탄압하기 위해서 保安司令部가 배후에서 폭력배를 이용하여 敎人으로 가장을 시키고 200名의 敎인들이 자기 教會에서 예배를 못 보는 생활을 4年동안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名의 敎인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教會內部の 분쟁인 것처럼 政府에서는 가장을 하고 있지만 4年동안 노상에서 예배를 보고 있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敎인들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쪽이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처벌을 당하고 폭행한 사람은 組織暴力隊 한 사람이 그중에 끼어 있고 더군다나 지난 번에 유명한 장진석의 서진「를 싸롱」事件에 관련됐던 홍성규라는 組織강패가 그중에 있는 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民事法院에 訴訟도 제기되어서 모든 訴訟이 박형규 牧師側에서 이겼지만은 그것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것은 필경 權力機關인 保安司令部가 뒤에서 사후에 조정을 하고 그런 權力機關의 조정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調查委員會에서 그것을 조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調查委員會에서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다른 機關에서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할만한 機關이 없습니다. 司法的인 판단도 받았고 모든 訴訟에서 이겼지만은 지금 현재도 中部

물앞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그런 처절한 事件입니다.

이런 두 가지 事件을 宗教彈壓을 한 權力의 횡포다 하는 뜻에서 이 委員會에서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學生들 復學生 우중원군이라든지 혹은 서울大學生 김성수군이라든지 또 신호수군이라든지 이런 소위 時局學生들이 이유없이 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朴鍾哲군같은 時局事犯을 搜查하는 사람들이 拷問을 하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런 식으로 變死處理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모든 國民들은 하고 있습니다. 家族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拷問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拷問하다가 죽으면 일선에서 以北으로 갈려던 것을 총으로 쏘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交通事故를 위장해서 너 죽은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搜查하는 사람들이 被害者들한테 공언을 합니다. 그 공언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家族들 立場에서는 그사람에 대한 死因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딱한 노릇입니다. 이래서 튼튼했던 大學生이 집을 나간지 며칠만에 죽어서 變死體로 발견됐다 이런 것을 警察에서 內査를 해 보니까 자살로 인정된다 이런 것으로 國民을 속여왔다 하는 것이 우리 國民들의 의혹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역시 이 國會가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는 중요한 人權侵害고 이것이 拷問과 관계가 있지않나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위 變死者들에 대한 死因糾明을 우리 調查委員會가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중에는 軍隊에 강제로 入營시켜서 軍隊에서 죽은 變死者들도 있습니다. 이런 變死者들이것들은 전부가 역시 5共和國에 있어서 法律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지 않고 權力的인 방법으로 혹은 暴力的인 방법으로 時局學生들을 다룬 결과 빚어진 비극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아까 歷史의 우리 民族의 정기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찾아내야 되고 어떤 制度的인 폭력이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調查委員會에서 이 人權問題로 이 문제들을 다루기를 提案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提案理由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新民主共和黨의 非理調査 追加對象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企業收奪과 그 誠金 두번째는 東亞建設權力結託不正疑惑 石油公社特定業體引受 唐津石門干拓地工事隨意契約經緯 韓國「트럭 터미널」株式強奪事件糾明 銀行監督院등 權力結託金融特惠疑惑 이 案件에 대해서 共和黨의 崔戊龍委員께서 提案說明을 하시겠습니다.

○崔戊龍委員 감사합니다. 崔戊龍입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 열거해 주신 項目이 여섯가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틀림이 없다면 여섯가지 첫번째 순서는 좀 뒤바뀐다마는 마련된 資料順序에 의해서 提案說明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大韓石油公社가 特定業體에 引繼된 件 다시 말씀드려서 80年代初 重化學工業 造成過程에서 5,000億원 資產規模의 石油公社를 特定業體에 引繼했습니다.

그 特定業體에 정실인제하면서 巨額의 政治資金이 오가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때문에 引繼引受過程에 대한 真相調査 引受過程에서의 特惠 및 非理 그 調査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韓國「트럭 터미널」株式強奪事件糾明 다시 말씀드려서 80年5月17日 당시 김규태 所有 韓國「트럭 터미널」株式 時價 34億원어치를 合同搜查本部要員들이 특정한 승某씨에게 넘기도록 강요 이에 불응하자 東水庫에 連行拷問하는 등 강제로 탄압을 했습니다. 때문에 合同搜查部 要員들의 金品強奪行爲調査糾明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唐津石門干拓地工事隨意契約經緯 다시 말씀드려서 石門干拓地 800億 工事が 大韓建設側과 繼續事業으로 隨意契約할 수 있도록 關係規定을 改正하게 된 것과 관련 정某 김某議員 및 官權介入說이 있습니다.

干拓地工事 入札에 따르는 非理介入疑惑調査 여타 忠南 일원 大型工事に 官權介入疑惑이 있기 때문에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企業收奪과 誠金입니다.

88年4月18日 證券去來소가 전체 上場企業 406個중 344個를 대상으로 調査한 결과 그 業體들이 83年에서부터 87년에 이르기까지 5年間 5,738億원의 寄附金을 支拂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育瓦臺 만찬이나 오찬등을 통한 誠金募金으로 애초에는 강요된 형태에서부터 시작돼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납입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誠金募金을 위한 오찬 내지 만찬을 주재한 것은 바로 警護室長이었고 誠金支出을 거부할 경우 金融貸出中斷 稅務監査등의 보복조치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寄附金 納入 明細調査 募金額의 向方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東亞建設 權力結託不正疑惑입니다.

洪淳斗를 東亞「그름」部長에서 系列社 社長으로 채용 蔚珍原子力發電所 陝川「댐」 住岩「댐」 등 數千億工事を 政府當局으로부터 隨意契約締結 東亞建設에서 축조한 金浦干拓地 一部를 環境廳의 쓰레기埋立場으로 쓴다는 이유로 500億원에 再買入 87년에는 銀行으로부터 特別融資 300億을 貸出發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隨意契約 背景 및 과정 干拓地 再買入 과정에서의 特惠 및 結託 特別融資 등에 얽힌 非理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를 非理調査 追加對象項目으로 신청을 하고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追加調査 對象에 대한 各黨의 提案說明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 委員들께서 提案說明을 잘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追加調査 對象으로 提案說明된 이 案件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處理方案을 여러 委員들께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鎭委員 委員長!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黃潤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鎭委員 各黨에서 追加로 여러 案件을 具體적으로 提案說明을 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原則적으로는 提案된 案件에 대해서 本 特別委員會에서 各 案件別로 과연 그 案件이 本 特別委員會에서 다루어야 할 當爲性이나 價値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게 贊反討論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본委員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贊反對論만 各案件別로 오늘 追加된 것이 약 30件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效率的인 會議進行도 될 수가 없고 원래 해야 할 조사는 하지 못하면서 그냥 討議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라 하는 우려에서 일응 이 追加對象 案件이 幹事會議에서 완전한 合意를 못보고 오늘 本特別委員會에 上程된 것으로는 압니다만 會議의 效率的인 進行을 위해서 追加對象 案件의 採擇 여부를 다시 한번 各黨 幹事會議에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協議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動議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淵 일단 黃潤鎡委員께서 4黨 幹事會議에서 採擇與否를…… 다시 幹事會議로 넘기는 그런 動議를 했습니다.

趙昇衡委員 말씀하세요.

○趙昇衡委員 지금 제가 提案說明하는 도중에 各黨에서 제출한 案件을 전부 調査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個以上 政黨이 같은 案件을 내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改議로 이런 提案을 합니다.

첫째 2個 政黨以上이 중복되어서 提案하고 있는 案件들은 오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잠깐 듣고 表決에 붙여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項目에 대해서는 일응 保留했다가 내일 會議에서 다시 討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改議를 합니다.

○張慶宇議員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저희 黃潤鎡委員께서 모처럼 우리 本特委가 여러 가지 運營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난관끝에…… 各黨이 提案하신 調査案件對象을 제가 나름대로 調査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平民黨이 원래 20個項을 내놓으셔가지고 8個項에 未備事項이 있었습니다. 저희 民正黨이 25個의 項을 내놓고 있었고 統一民主黨은 자그만치 58個項을 내놓아서 未備件이 26件이나 있었습니다. 共和黨은

자그만치 59件을 내놓고 그 중에 未備件이 24件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委員會의 여러 가지 목적이나 또 빨리 이 委員會를 운영해서 많은 部分을 우리 國民에게 알려야 된다는 이런 소망스러운 사항때문에 그동안 다시 여러가지 幹事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合意를 해주셔서 30個項을 合意를 했고 오늘 또 案件을 만드시면서도 특별히 統一民主黨에서는 17個案件 共和黨에서는 9個 平民黨에서는 추가로 4件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아울러 檢討를 해 보았더니 방금 趙昇衡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두 黨 이상이 重複된 部分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8件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봐 본다면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30個가 나왔습니다마는 約 22個밖에는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특히 3個 調査特委 우리 非理調査 光州調査 또 不正選舉調査 이 3個의 特別調査委員會가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憲法 61條에 國政調査에 관한 것하고 또 國會議法 120條를 해 가지고 이번 調査委員會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 새롭게 만들어진 國政監·調査法에 의하면 이 調査對象의 案件이라든지 또는 방법이 모든 등등이 원래는 本會議의 議決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附則過程에 의해서 바로 여기 案件이 된 事項이고 또 이런 정신하에서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幹事님들께서 協議하셔서 지금까지 30個案의 案을 서로 정말 易地思之한 입장에서 이 여러가지 案을 우리가 深度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와서 여기서 일일이 件件 提案說明에 대한 反對討論을 전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表決을 하고 한다면 원래 이 調査委員會 設立目的도 문제거니와 바로 이런 데에 우리 全體가 與野없이 같이 非理를 조사한다는 그 큰 뜻을 살리기 위해서도 방금 黃潤鎡委員께서 議事進行 動議하신…… 다시 한번 4黨의 內분 幹事님들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분명히 아까 再請을

했습니다.

委員長께서는 이 動議案에 대해서 일단 성립을 해 주시고 바로 진행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지금 停會해 놓고 幹事會議를 하자는 것이예요 안 그러면 이것으로써 그만 하자는 것이예요?

○張慶宇委員 이것으로써 그만 하자는 것이예요.

○金東周委員 무슨 소리에요?

○趙昇衡委員 8個가 아니라 지금 調査한 것으로서는 12個입니다. 이 12個項에 대해서 오늘 어떤 結論을 내고 重複되지 않은 것은 일단 保留했다가 來日 本委員會에서 再論을 하든지 아니면 幹事會議에 맡기든지 그것은 다음 決議에 따라서 합시다. 우선 12個項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張慶宇委員 다시 停會 하시지요.

○金東周委員 民正黨의 黃潤鎡委員께서나 張委員께서도 한 發言은 意味가 있다고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全 國民이 5共非理特委를 엄정하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幹事會議는 또 우리가 國會法에 의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修正案을 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會議를 停會를 하고 그 時間을 이용해서 幹事會議를 하고 다시 本委員會를 續開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修正案을 내겠습니다.

그 동안에 幹事會議는 議事…… 이 採擇問題 그 다음에 各 黨에서 낸 중복된 案件도 조정해서 오늘 늦더라도 오늘 議案정도는 決定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이것을 미루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慶宇委員 일단 停會 하시죠?

○趙昇衡委員 지금 改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委員長 李基澤 委員長으로서 諒解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會議를 하다 보면 動議도 나오고 改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이 正式로 成立되어 버리면 결국은 表決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委員長 個人 事情뿐만은 아니겠습니까마는 事實 저 個人뿐만 아니

라 이 나라 政治가 많은 피해를 보아 온 얼마전의 아픈 상처도 다시 한번 想起시키면서 이 委員會는 委員長 方針으로는 가능한 動議 改議 구런 正式節次를 거쳐서 多數 決로 이렇게 모든 事案을 決定하는 것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全體會議 그리고 幹事會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우리가 討論을 해서 우리가 어느 政黨이든지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合意事項을 導出해 나가는 그런 方式으로 委員會를 運營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試圖해 보고 싶다는 것이 委員長으로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事實 그 동안은 우리 委員會가 두 차례 세차례 전번 두차례까지는 摘要式의 어떤 節次를 우리가 거쳤고 오늘 비로소 與黨의 主張 그리고 野黨의 主張 그리고 이 主張이 팽팽히 맞서서 이것을 우리가 表決에 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좀 對話를 통한 合意에 한번 도달해 볼 것인가 이 노력을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운 날씨 또 지루하기도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停會를 한번 하고 우리 公私席에서 委員들끼리도 좀 對話를 나누고 우리 幹事會議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서 뭔가 合意된 案을 하나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56分 會議中止)

(20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停會時間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저희들이 停會를 할 때에는 오늘 野團 3黨에서 追加調査對象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고 그 이후로 對策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民正黨의 黃委員께서는 여기에서 討論을 거치는 것 보다는 4黨 幹事會議에 다시 回附해서 調査對象을 논의토록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趙昇衡委員께서는 反對討論이나 質問이 없으면 多數決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의견 비슷하고 또 우리 民主黨의 金東周委員 등은 停會를 하고 幹事會議에서 追加調査對象選定을 오늘중으로 한번 해 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全體會議에서 제대로 合意에 도달하지 못해서 停會를 하고 長時間 合意點을 찾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또 委員長의 不德의 소치로 合意點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時間은 8時가 넘고 있고 또 어쨌든 調查對象으로 오늘 會議에서 30個의 議案을 확정짓고 또 追加調查對象에 대해서도 提案說明까지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委員會를 進行하고 또 급하게 쉽게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性格의 委員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會議를 여기서 끝맺고 이 상태에서 散會를 하고 來日 午後 2時에 委員會 召集을 다시해서 오늘 未合意된 部分 다시 말해서 野團 3黨에서 提案한 追加對象 問題를 가지고 다시 會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별 方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第4次 委員會는 來日 午後 2時에 開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25分 散會)

委員會名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 非理 調查特別委員會	申 鎮 洙	崔 戊 龍	新民主共和黨

(8月2日字)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重 權	朴 進 球
徐 廷 華	安 秉 珪	梁 慶 子
李 聖 浩	李 承 潤	李 廷 武
張 慶 宇	黃 潤 鎔	金 奉 旭
金 璋 鎬	朴 實 孫	周 恒 恒
林 春 元	趙 昇 衡	許 萬 基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金 奉 祚	盧 武 鉉	金 鍾 植
金 炫	崔 戊 龍	洪 熙 杓

○委員아닌出席議員

崔 炯 佑	成 鍾 漢	沈 完 求
鄭 昌 和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李 起 昆
立 法 審 議 官	權 龍 太
立 法 審 議 官	姜 俊 浩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